

인용경전에 근거한 『釋摩訶衍論』의 저술시기 고찰

김지연

금강대학교 HK연구교수
dodododo82@hanmail.net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저술시기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 II. 『釋摩訶衍論』에 나타나는 경전의 분류 | V. 남겨진 경전들의 가능성 |
| III. 저술자와 번역자의 진위 | VI. 나오는 말 |

요약문

『釋摩訶衍論』은 『大乘起信論』의 주석서로 龍樹가 저술하고 5세기 초에 筏提摩다가 번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序」를 지은 요흥황제라는 인물의 실존문제, 『出三藏記集』 및 『開元釋教錄』 등의 經錄에 기록이 없는 문제, 번역자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문제 등의 이유로 「序」에서 밝히는 저자와 번역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모치즈키 신크(望月信亨), 타니가와 타이교(谷川泰教), 모리타 류젠(森田龍僊), 카가와 에이류(香川英隆), 나스 세이류(那須政隆) 등이 『석마하연론』의 저술시기를 다루면서 다양한 설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본고는 『석마하연론』에서 밝히는 『摩訶衍論』의 소의경전 100부의 목록과 이 논에 인용된 경전을 근거로 하여, 『석마하연론』의 저자와 번역자의 진위를 밝히고 저술시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석마하연론』에 언급된 경전들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361-2007-1-AM0046)

살펴보는 것은 저술된 시기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저술된 경론들이 중국에 유입되어 번역되고, 중국에서 찬술되는 경론에 반영되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검토한 결과, 용수 이후의 저술 및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과 5세기 이후에 번역된 경전들이 인용되어 있었으므로, 저자와 번역자에 대한 「序」의 기록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實叉難陀·法藏·善無畏·金剛智·戒明·宗密을 기준으로 저술시기를 살펴보았을 때, 『大乘起信論義記』에 인용된 『楞伽經』의 문장이 『석마하연론』에 그대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법장의 만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마하연론』이 밀교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도 선무외·금강지가 번역한 『大日經』과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을 인용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상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선무외(716)나 금강지(719)의 入唐 전에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주제어

『釋摩訶衍論』 저술시기, 龍樹, 筏提摩多, 『摩訶衍論』의 소의경전, 인용경전, 법장, 밀교승

I. 들어가는 말

『大乘起信論』(이하 『기신론』으로 약칭)의 해석을 담은 『釋摩訶衍論』(이하 『석론』으로 약칭)은 용수(龍樹)가 찬술하고 401년부터 2년간 筏提摩多¹⁾가 번역했다고 요흥황제(姚興皇帝)의 「序」에 기록되어 있다.²⁾ 그러나 일본에서는 카이묘(戒明)가 『석론』을 전래한 때부터 오미노 미후네(淡海三船)와 사이쥬(最澄) 등에 의해서 위찬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³⁾ 왜냐하면 「序」를 지은 요흥황제라는 인물의 실존문제, 5세기 초에 번역되었지만 『出三藏記集』 및 『開元釋教錄』

1) 筏提摩多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별제마다’와 ‘벌리마다’ 중에 어느 표기가 정확한지 알 수 없으므로 한자로 표기하도록 한다.

2) 『釋摩訶衍論』(大正藏32, p.592a16-18; p.592a26-b01).

3) 김지연, 「『釋摩訶衍論』의 註釋의 研究」, 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대학원, 2014), pp.16-22 참조.

등에 기록이 없는 문제, 번역자에 대해 기록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자, 번역자, 찬술시기, 찬술지역 등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석론』의 성립과 관련하여 모치즈키 신크(望月信亨)⁴⁾, 타니가와 타이교(谷川泰教)⁵⁾, 모리타 류젠(森田龍僊)⁶⁾, 카가와 에이류(香川英隆)⁷⁾, 나스 세이류(那須政隆)⁸⁾, 시오이리 료우추(鹽入亮忠)⁹⁾, 이시이 코세이(石井公成)¹⁰⁾, 사토우 아츠시(佐藤厚)¹¹⁾ 등이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석론』은 대략 8세기 초에서 말까지 80여년 사이에 성립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각각의 연구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석론』에 언급된 경전을 중심으로 저술시기에 대한 다양한 설을 고찰하고자 한다. 『석론』의 특징 중 하나는 200부에 가까운 경론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이고,¹²⁾ 이 경론들의 찬술 및 역경된 시기를 통해 『석론』의 저술연대 역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석론』에 언급된 경전들을 분류한 후, 이를 통해 저자와 번역자인 용수와 筏提摩多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석론』의 성립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저술시기의 경계가 되는 인물들을 기준으로 나누어 경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석론』에 나타난 경전 가운데 명칭만 있거나, 인용된 문장의 출처를 확인 할 수 없어서 『석론』의 저술시기를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가능성의 여지가

-
- 4) 望月信亨, 「釋摩訶衍論の眞偽」, 『佛書研究』26(東京: 佛書研究会, 1917); 「釋摩訶衍論偽造考」, 『佛教學雜誌』2-8(東京: 金尾文淵堂, 1921).
 - 5) 谷川泰教, 「入楞伽經研究ノート」, 『仏教学会報』6(高野山: 高野山大学仏教学会, 1974).
 - 6) 森田龍僊, 『釋摩訶衍論之研究』- 第三編 釋摩訶衍論の眞偽(京都: 文政堂, 1969).
 - 7) 香川英隆, 「釋摩訶衍論の史的 연구」, 『密教研究』8(和歌山: 高野山大學密教研究會, 1922).
 - 8) 那須政隆, 『釋摩訶衍論講義』(成田: 成田山佛教研究所紀要, 1992).
 - 9) 鹽入亮忠, 「釋摩訶衍論解題」, 『國譯一切經論集部4』(東京: 大東出版社, 1938).
 - 10) 石井公成, 「『釋摩訶衍論』の成立事情」, 『鎌田茂雄博士還曆記念論集』(東京: 鎌田茂雄博士還曆記念論集刊行會, 1988); 「『釋摩訶衍論』における架空經典」, 『佛教學』25(東京: 佛教思想學會, 1988).
 - 11) 佐藤厚, 「新羅華嚴と『釋摩訶衍論』との關係をめぐる一つの手がかり」, 『東洋學研究』44(東京: 驅澤大學東洋學會, 2007).
 - 12) 『석론』에 언급된 경전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리타만이 『釋摩訶衍論之研究』에서 『석론』에 인용된 경전에 주목하였지만, 『金剛三昧經』을 비롯한 8종류의 경전만을 검토했다는 한계가 있다.

있는 경전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이 『석론』에 언급된 경전들을 검토하는 것은 저술된 시기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저술된 경론들이 중국에 유입되어 번역되고, 중국에서 찬술되는 경론에 반영되는 과정까지도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釋摩訶衍論』에 나타나는 경전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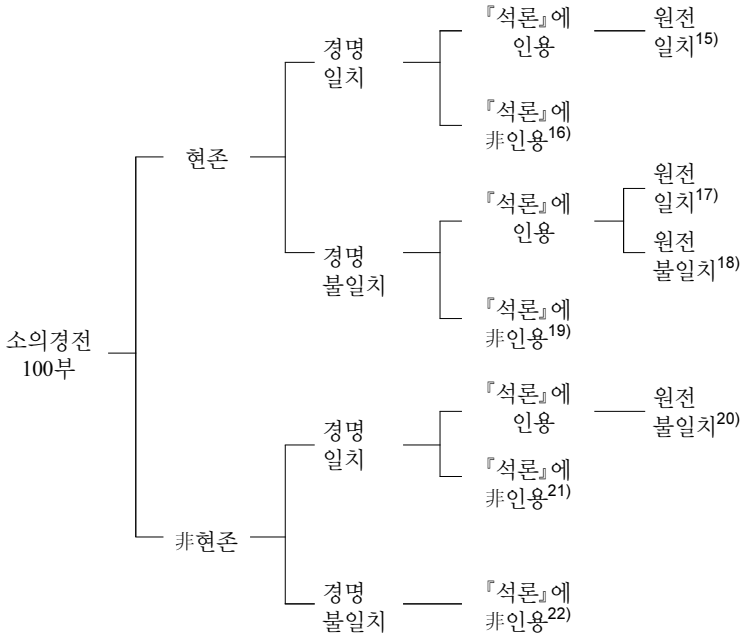
『석론』은 『기신론』을 10권에 걸쳐 상세하게 해석하면서 많은 경전을 근거로 들어 서술하는데, 이들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석론』 제 1권에 제시된 『摩訶衍論』 즉, 『기신론』이 소의로 삼는 경전 100부이다.¹³⁾ 이것은 『석론』의 입장에서 『기신론』의 성립에 기반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경전들을 나타낸 것이지만, 현재 경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종류이다.¹⁴⁾

해당하는 경전의 순서와 경명은 ③『金剛三昧經』, ④『諸法無行經』, ⑨『大乘同性經』, ⑱『維摩詰經』, ⑳『無始經』, ㉒『輪轉經』, ㉓『華嚴經』, ㉔『小品經』, ㉕『佛性經』, ㉖『楞伽經』, ㉗『本業經』, ㉘『八德經』, ㉙『緣起經』, ㉚『無相經』, ㉛『夫人經』, ㉜『法門經』, ㉝『摠持經』, ㉞『不動經』, ㉟『修行道地經』이다. 이 경전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존재하는지, 『석론』에 기록된 경명이 원전의 명칭과 일치하는지, 『석론』에 인용된 문장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3) 『釋摩訶衍論』(大正藏32, pp.593c10-594a28).

14) 김지연, 앞의 논문, p.24에서는 27종류라고 밝혔다. 하지만 ㉑『歸本經』의 근거로 밝힌 『金剛經法眼懸判疏鈔』와 『法華經授手』는 청나라 시대의 저술이고, ㉒『眞修經』의 근거로 밝힌 『圓覺經疏鈔隨文要解』와 『釋摩訶衍論贊玄疏』는 『석론』보다 후대의 저술이다. 그리고 ㉕『一體經』은 비록 『석론』에 그 경전의 내용이 일부 인용되어 있지만 그 문장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一體經’은 특정 경전보다는 대장경 등을 지시한다. 또한 ㉘『大海經』의 근거로 밝힌 『釋摩訶衍論贊玄疏』와 『宗門拈古彙集』도 『석론』보다 후대의 저술이고,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와 『大乘義章』에 나타나는 ‘大海經’은 특정한 경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근거가 경전의 존재여부를 가리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⑧『自性自體經』, ⑪『果圓滿經』, ㉞『賢聖經』, ㉟『隱密經』, ㉑『歸本經』, ㉒『眞修經』, ㉕『一體經』, ㉘『大海經』을 제외하여 19종류로 수정한다.

〈표 1〉 『마하연론』의 소의경전 분류



두 번째는 『석론』에 인용된 120여개의 경전으로, 논 전체에 걸쳐 190회 정도 인용되었다.²³⁾ 이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경전과 비록 산실되었지만 경록이나 다른 경론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大本維摩詰經』, 『般若波羅蜜經』, 『無相經』, 『法門經』, 『華嚴經』, 『菩薩瓔珞大本業經』, 『勝鬘經』, 『總持經』, 『金剛三昧經』, 『楞伽經』, 『不增不減經』, 『摩訶摩耶經』, 『大宗地玄文本論』, 『龍王經』, 『寶積經』, 『道

15) ③『金剛三昧經』.

16) ④『諸法無行經』, ⑨『大乘同性經』, ④⑤『緣起經』, ⑧⑧『修行道地經』.

17) ③⑧『楞伽經』, ③⑨『本業經』, ⑦①『夫人經』.

18) ①⑨『維摩詰經』, ③⑩『華嚴經』, ③①『大品經』, ④⑨『無相經』, ⑦②『法門經』, ⑦⑤『總持經』.

19) ④③『八德經』.

20) ②②『無始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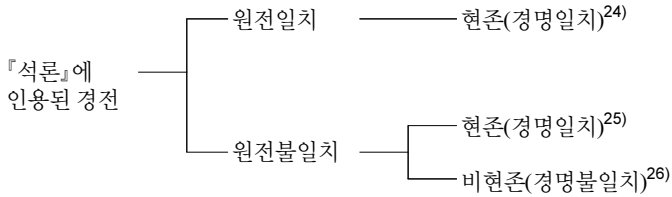
21) ⑦⑥『不動經』.

22) ②④『輪轉經』, ③⑥『佛性經』.

23) 김지연, 앞의 논문, p.27, <표3>참조.

品經』, 『天子經』, 『怖畏經』, 『世界經』, 『音聲經』이다. 21가지 중에서 앞에서 다룬 『마하연론』의 100부 경전과 중복되지 않는 경전은 『부증불감경』, 『마하마야경』, 『대중지현문본론』, 『용왕경』, 『보적경』, 『도품경』, 『천자경』, 『포외경』, 『세계경』, 『음성경』이다. 이 10가지 경론들은 『석론』에 인용된 부분이 원전과 일치하는지, 현재 남아있는지, 경명이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표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2> 『석론』에 인용된 경전의 분류



지금까지 『석론』에서 밝힌 『마하연론』의 소의경전과 『석론』에 인용된 경론을 검토하여 각각을 분류하였다. 이 범주에서는 전자의 19종류와 후자의 10종류의 경전만이 현 시점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29종의 경전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III. 저술자와 번역자의 진위

1. 『釋摩訶衍論』은 龍樹가 저술했는가?

선행연구에 따르면 『석론』에는 인·의·예·지(仁·義·禮·智) 등과 같은 중국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용수 이후의 저술이 등장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용수

24) 『不增不減經』, 『摩訶摩耶經』.

25) 『大空地玄文本論』.

26) 『龍王經』, 『寶積經』, 『道品經』, 『天子經』, 『怖畏經』, 『世界經』, 『音聲經』.

의 진찬은 부정된다. 하지만 용수 이후에 제작된 경전이나 논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II장에서 검토하여 분류한 경전 가운데 『마하연론』의 소의경전 100부(<표1>)에서 현존하지만 경명이 일치하는 경전에 의거하여, 용수가 『석론』을 저술했다는 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능가경』이다. 이 경전의 역본으로서는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가 443년에 번역한 『楞伽阿跋多羅寶經』, 보리유지(菩提流支)가 513년에 번역한 『入楞伽經』, 실차난타(實叉難陀)가 700년부터 4년간 번역한 『大乘入楞伽經』이 있다. 『석론』이 인용한 『능가경』과 일치하는 부분은 『대승입능가경』을 제외한 『능가아발다라보경』²⁷⁾과 『입능가경』²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²⁹⁾ 『능가경』은 『석론』에 20회 이상 언급될 정도로 이 논 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여래장 사상을 담고 있는 후기 대승경전군에 해당하므로 용수 이후에 제작된 경전이다.

둘째는 『부인경』이다. 이 경전은 보리유지가 번역하기도 했지만, 『석론』이 인용한 문장과 일치하는 것은 구나발타라가 436년 번역한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이다.³⁰⁾ 『부인경』의 범본은 비록 남아있지 않지만 『寶性論』과 『大乘集菩薩學論』에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있어서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해 볼 수 있다.³¹⁾ 그렇지만 『부인경』 역시 여래장 사상이 반영된 후기 대승경전이므로 용수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27)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6b18-c03; p.627a22-24; p.627c13-15; p.630b28-29; p.632c03-08; p.633a16-19)은 각각 『楞伽阿跋多羅寶經』(大正藏16, p.484b09-21; p.483a15-17; p.483a18-19; p.500b01; p.483a10-14; p.483a19-21)에 해당한다.

28)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04c15-16; pp.604c28-605a03; p.606a02-08; p.606a25-27; p.608b15-21; p.611b18-20; p.627a25-27; p.627c11-13; p.632c08-13)은 각각 『入楞伽經』(大正藏16, p.518c20; p.555c14-17; pp.530c29-531a05; p.536a27-28; p.559c04-13; p.522a01-03; p.522a01-03; p.522a04-06; pp.521c25-522a01)에 해당한다.

29) 이시이는 『『釋摩訶衍論』における架空經典』, p.54에서 『석론』 제2권에 『7권능가경』도 인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토한 결과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06a21-23) 부분은 『大乘入楞伽經(7권)]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능가경』의 세 번역본에 모두 있는 내용이며, 『석론』의 문장이 일치하는 것은 『入楞伽經(10권)]이다.

30)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08b25-26; p.608c04-06; p.625b01-03)은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大正藏12, p.221c16-17; p.221c17-18; p.220a09-10)에 해당한다.

31) 水野弘元 外3人, 『佛典解題事典』(東京: 春秋社, 1993), p.93.

셋째는 『본업경』이다. 이 경전은 지겸(支謙)이 3세기 중엽에 번역한 『佛說菩薩本業經』, 섭도진(聶道真)이 4세기 초에 번역한 『諸菩薩求佛本業經』, 축불념(竺佛念)이 4세기 중엽에 번역한 『菩薩瓔珞本業經』이 있다. 이 중에 『석론』이 주로 인용한 경전은 축불념의 『보살영락본업경』이다.³²⁾ 그러나 모치즈키 신코는 이 경의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梁代이전 중국에서 망작된 위경이라고 판정하였고, 그 후 이 설이 대체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다.³³⁾ 이 설에 따르면 『본업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인도에서 용수가 『석론』을 찬술했다는 사실은 부정된다.

2. 번역자 筏提摩多是 누구인가?

『석론』의 「序」에는 筏提摩다가 대장엄사에서 401년부터 2년에 걸쳐 이 논을 번역했다고 한다. 401년은 요흥황제가 구마라집(鳩摩羅什)을 중국으로 모시고 온 때와 일치하므로 筏提摩多是 구마라집과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은 『高僧傳』을 포함한 다른 경전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筏提摩다가 401년에 『석론』을 번역했다는 기록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II장에서 다룬 경전 중 『석론』에 인용된 경전에서 원전에 일치하는 경전(<표2>)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마하마야경』이다.³⁴⁾ 『석론』은 『기신론』의 저자가 마명임을 증명하기 위해 마명이 때를 달리하여 6번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이 경전을 제시한다.³⁵⁾ 하지만 『마하마야경』은 『석론』이 번역되었다고 하는 시기보다 후대인 479년에서 502년 사이에 담경(曇景)이 번역하였다.

둘째는 『부증불감경』이다.³⁶⁾ 『석론』이 여래장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등장

32)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48c14-16; p.652a24-b01)은 『菩薩瓔珞本業經』(大正藏24, p.1021b24-25; p.1014b29-c05)에 해당한다.

33) 水野弘元 外3人, 앞의 책, p.114.

34) 『釋摩訶衍論』(大正藏32, p.594b20-24)에 해당하는 부분은 『摩訶摩耶經』(大正藏12, p.1013c05-08)이다.

35) 『釋摩訶衍論』(大正藏32, p.594b06-c19).

36)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08c14-17; p.608c23-26; p.609a01-04)은 각각 『佛說不增不減經』(大正藏16, p.467b25-28; p.467c01-03; p.467c07-09)에 해당한다.

하며, 법장(法藏)의 저술³⁷⁾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이 경전은 525년에 보리유지에 의해 역출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석론』이 번역되었다고 하는 시기보다 늦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석론』에는 용수 이후의 저술인 『능가경』·『부인경』과 중국 찬술로 받아들여지는 『본업경』이 인용되고, 5세기 말에서 6세기 중반에 번역된 『마하마야경』과 『부증불감경』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용수가 저술하고 401년에 筏提摩다가 번역했다는 「序」의 기록에 대한 진위성이 입증되었고, 뿐만 아니라 『석론』이 인도에서 찬술된 논서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렇다면 『석론』은 누가, 언제 저술한 것일까?³⁸⁾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이 문제의 답을 찾기에는 불충분하지만, 성립된 시기는 고려해 볼 수 있다.

IV. 저술시기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석론』의 저술시기를 다룬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모치즈키 신코는 720년(唐開元8)에서 779년(大曆14) 사이에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타니가와 타이쿄는 실차난타가 『대승입능가경』 7권을 역출(700-704)하기 이전, 모리타 류젠은 법장의 적년(712)에서 불공이 입멸한 해(774)까지로 추정하고, 카가와 에이류는 법장의 적년(712)에서 종밀이 태어난 해(780), 나스 세이류는 선무외(善無畏, 637-735)·금강지(金剛智, 671-741)·불공(不空, 705-774) 등이 활약한 당의 중엽에서 말, 시오이리 료우추³⁹⁾, 이시이 코세이⁴⁰⁾, 사토우 아츠시⁴¹⁾는 법장의

37) 『大乘起信論義記』(大正藏44, p.243c25; p.275a10).

38) 『석론』의 저자에 관련된 논란 가운데 신라의 승려 月忠이 저술했다는 설이 있다. 圓仁은 당나라에 유학할 당시 신라승 珍聰에게 『석론』이 月忠의 妄造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으로 돌아간 후 제자 安然에게 전하였다. 安然은 『悉曇藏』(大正藏84, p.374b20-c13)과 『眞言宗教時義』(大正藏75, p.375b02-04)에 이 내용을 기록하였다. 또한 永超도 『東域傳燈錄』(大正藏55, p.1158c15)에서 『석론』이 신라 대공산 月忠에 의해 저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9) 시오이리는 安然의 설과 『석론』 제9권의 鬼文字를 근거로 하여 『석론』과 신라와의 관계를 밝히면서, 신라 月忠의 찬술에 타당성이 많다고 보았다. 그의 연구는 『석론』의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최만년(712)에서 카이묘의 일본전래(779)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석론』의 저술시기에 대한 다양한 설이 제시되고 있는데, 각각의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들을 기준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實叉難陀의 『楞伽經』 번역(700-704) 이전

III장에서 『능가경』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타니가와는 『석론』에 인용된 『능가경』이 실차난타역의 『대승입능가경』을 제외한 구나발타라역의 『능가아발다라보경』과 보리유지역의 『입능가경』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는 비록 현존하지 않지만 『능가경』을 번역한 異本이 많으며, 『석론』이 인용한 『대본능가경』은 법장의 『入楞伽經心玄義』에도 인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론』이 사용한 경전과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능가경』이 『석론』에 보이는 사례를 찾아보면,⁴²⁾ 『능가아발다라보경』은 6회, 『입능가경』은 9회, 『대본능가경』은 6회 인용되었다. 『대본능가경』의 경우는 『대종지현문본론』의 문장과 일치하는 경우가 1회⁴³⁾이고, 나머지 5회⁴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장이었다. 타니가와와 주장대로 실차난타역의 『능가경』

40) 이시이는 『석론』에 보이는 경전들의 경향이 ‘회통’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석론』이 『기신론』에 대한 다양한 설을 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술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석론』과 『金剛三昧經』·『金剛三昧經論』의 관계를 드러내어, 이 논의 元曉·義湘·法藏 등의 영향을 받은 화엄계통에 가까운 신라의 수선사에 의해 저술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엔도 주니치로(遠藤純一郎, 『釋摩訶衍論』新羅成立說に関する考察, 『智山學報』45, 1996)는 이시이가 제시한 근거들을 검토하여, 『석론』이 『기신론』을 둘러싼 논쟁을 회통하기 위해 저술된 것은 맞지만, 내용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문제의식에서 발단한 것이라고 보아 의상계 화엄에 의한 신라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시이와 엔도의 연구는 『석론』의 저술시기 보다는 성립배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41) 사토우는 9세기와 10세기의 신라 화엄 문헌에서 『석론』과 동일한 구절이 보이는 것을 근거로 신라에서 『석론』이 유통되었으며 신라화엄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성립지역을 논하고 있어서 본고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42) 각주 27번, 28번 참조.

43) 馬鳴이 저술하고 眞諦가 번역했다고 전해지는 『大正藏地玄文本論』을 두 차례(『釋摩訶衍論』大正藏 32, p.636c16-25; p.637b18-22) 인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대종지현문본론』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본능가경』이라고 밝힌 부분(『釋摩訶衍論』大正藏32, p.604c25-26)이 『대종지현문본론』(大正藏32, p.672a20-21)과 동일하다.

44)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5a07-09; p.627c17-21; p.627a27-b01; p.632c13-19; p.633a19-22).

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것을 근거로하여 『석론』의 성립이 실차난타가 『능가경』을 번역하기 이전이라고 할 수 없다. 『기신론』의 주석서들 대부분이 실차난타의 번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진제(眞諦)가 번역했다고 하는 『기신론』을 本論으로 삼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타니가와와 논리대로라면 이 주석서들도 모두 실차난타의 번역 이전에 성립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실차난타의 번역본이 인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론』의 성립을 실차난타가 『능가경』을 번역한 시기(700-704)보다 이전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타니가와가 『석론』의 『대본능가경』과 법장의 저술에 보이는 『대본능가경』을 연결시킨 부분에서도, 『석론』과 법장이 사용한 『대본능가경』은 다르다고 판단된다. 『석론』에는 『능가경』 외에 경명 앞에 ‘大木’이 붙은 경전인 『大木金剛三昧經』⁴⁵⁾, 『大木華嚴經』⁴⁶⁾, 『大木維摩詰經』⁴⁷⁾이 등장한다. 『금강삼매경』은 총 6회 인용되었는데, 『대본금강삼매경』이라고 밝힌 부분을 제외한 5회의 인용은 모두 『금강삼매경』에서 찾을 수 있다.⁴⁸⁾ 『화엄경』은 불타발타라(佛跋陀羅)가 418년에서 422년 사이에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을 가리키는 듯하지만,⁴⁹⁾ 『석론』에 인용된 부분이 『화엄경』에 보이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유마힐경』은 지겸이 223년에서 228년에 번역한 『佛說維摩詰經』, 구마라집이 406년 번역한 『維摩詰所說經』, 현장(玄奘)이 650년에 번역한 『說無垢稱經』이 현존한다. 하지만 『석론』에 인용된 문장은 세 가지 本에서 보이지 않는다. 각각을 확인해 본 결과 경명 앞에 ‘大木’이 붙은 경우, 『석론』의 인용문과 일치하는 문장은 해당되는 경전에서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석론』

45)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32a09).

46)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68a11).

47)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06c03).

48)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03b03-05; p.606a08-17; p.611c23-27; p.630a15-17; p.630a17-20)은 『金剛三昧經』(大正藏9, p.370a06-07; p.371a11-19; p.368b13-15; p.373b09-11; p.368b21-24)에 해당한다.

49) 『大方廣佛華嚴經』은 실차난타가 695년에서 699년 사이에 번역한 異本도 있다. 하지만 『석론』이 진제와 실차난타가 번역한 『기신론』 가운데 진제본을 사용하고 있는 점과 구나발타라·보리유지·실차난타의 세 가지 『楞伽經』 번역본 가운데 실차난타본을 제외한 두 가지 本을 사용하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석론』에서 밝히는 『화엄경』이 실차난타가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의 경우에 한해서는 ‘大木’이 붙은 경전들은 이 논문의 저자가 창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2. 法藏(643-712) 晩年 제작설

모리타는 『석론』에 미친 원효(元曉)의 『起信論疏』(이하 『해동소』로 약칭)와 법장의 『大乘起信論義記』(이하 『법장의기』로 약칭)의 영향을 밝히면서, 두 논서 중에서도 『법장의기』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모리타와 더불어 카가와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석론』이 법장의 만년 이후에 제작되었다는 설을 지지하고 있다.

『석론』에 인용된 부분을 검토해보면, 『해동소』와 『법장의기』를 참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석론』이 『능가경』을 인용한 부분에서 『법장의기』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능가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여래장은 선과 불선을 원인으로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는다. 因과 본래부터 함께 하여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마치 광대의 아들처럼.” 이 내용은 『석론』 뿐만 아니라 『해동소』와 『법장의기』에서도 보인다.

〈표 3〉 『기신론』의 주석서에 인용된 『능가경』

『楞伽阿跋多羅寶經』	“佛告大慧 如來之藏 是善不善因 能遍興造一切趣生 譬如伎兒 ⁵⁰⁾ “大慧！如來藏者 受苦樂與因俱 若生若滅 ⁵¹⁾
『入楞伽經』	“佛告大慧 如來之藏 是善不善因故 能與六道作生死因緣 譬如伎兒出種種伎 ⁵²⁾
『大乘入楞伽經』	“佛言 大慧 諦聽 諦聽 當為汝說 大慧 如來藏 是善不善因 能遍興造一切趣生 譬如伎兒變現諸趣離我所 ⁵³⁾
『起信論疏』	“名如來藏 如經言 如來藏者 是善不善因 能遍興造一切趣生 譬如伎兒變現諸趣 ⁵⁴⁾
『賢首義記』	“又云 如來藏者 為善不善因 受苦樂 與因俱 若生若滅 猶如伎兒 ⁵⁵⁾
『釋摩訶衍論』	“楞伽契經中 作如是說 如來藏者 為善不善因 受苦樂 與因俱 若生若滅 猶如伎兒故 ⁵⁶⁾

50) 『楞伽阿跋多羅寶經』(大正藏 16, p.510b04-05).

51) 『楞伽阿跋多羅寶經』(大正藏 16, p.512b16-17).

52) 『入楞伽經』(大正藏 16, p.556b22-24).

53) 『大乘入楞伽經』(大正藏 16, p.619b29-c02).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장은 『석론』이 『능가경』을 인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능가경』의 번역본인 『능가아발다라보경』·『입능가경』·『대승입능가경』에 있는 문장과는 다르다. 또한 원효가 『해동소』에서 인용하고 있는 『능가경』의 문장과도 차이가 있다. 반면에 법장이 『법장의기』에서 원용한 『능가경』과는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저자가 『석론』을 저술할 때 『법장의기』를 직접적으로 참고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석론』은 『법장의기』가 저술된 이후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善無畏·金剛智·不空의 入唐시기설

모치즈키는 720년을 『석론』이 성립된 시기의 기준으로 세우고 있다. 그 근거로 『석론』에 언급된 6명의 마명에 대한 설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17일에 출현하는 여섯 번째의 마명에 주목하였다. 모치즈키는 이 설이 금강지가 번역했다고 전해지는 『馬鳴菩薩大神力無比驗法念通儀軌』(大正藏20, pp.674c-675a)에 의거한다고 보아, 선무외·금강지가 당에 온 8세기 초반으로 설정한다.

모리타도 『석론』이 진언종에서 오래전부터 밀교의 논장으로 취급되어 온 점에 미루어 『석론』의 저술시기에 불공이 입멸한 774년을 포함시키면서도 이미 번역되어 있던 밀교 경전들이 인용되고 있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나스도 『석론』에 보이는 밀교계의 사상에 주목하여 금강지·선무외·불공 등이 활약한 8세기 중반에서 말엽에 『석론』이 저술되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카가와도 『석론』이 『太政官符』의 금강정부(金剛頂部)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 계통의 인물, 구체적으로는 불공삼장이 찬술했다고 주장한다. 불공이 37도를 건립하려고 시도한 것과 『석론』에서 33법문을 금강계37도에 배당한 것을 동일한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불공이 자신의 교판을 논하

54) 『起信論疏』(大正藏 44, p.206c20-22).

55) 『大乘起信論義記』(大正藏 44, p.251c09-10).

56) 『釋摩訶衍論』(大正藏 32, p.603c15-17; p.608b02-04).

기 위한 전거로 이 논을 제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석론』의 8권부터 나타나는 짙은 밀교적 색채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들이 중국에 밀교가 유입된 시기나 선무외(716)·금강지(719)·불공(720) 등이 입당한 시기를 『석론』의 성립과 연관시킨다. 하지만 『석론』에 인용된 경전들을 검토해보면, 금강지가 번역한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선무외가 번역한 『大日經(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불공이 번역한 『金剛頂經(金剛頂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大教王經)』의 경명이 언급되거나 인용된 예는 없다. 다만 『文殊師利論議第一神力殊勝慈悲圓滿虛空功德經』·『文殊師利善巧方便相似譬喻大陀羅尼經』·『大證得陀羅尼經』·『慧明陀羅尼經』·『金剛陀羅尼經』·『法門名字經』·『清淨心地無垢陀羅尼經』·『文殊師利歡喜陀羅尼經』·『文殊師利發起十萬一千種甚深廣大圓滿陀羅尼開問問大覺尊益大衆海經』과 같이 경명에서 밀교적 성향이 드러나는 경전이 『석론』에 보인다.

물론 『대일경』이나 『금강정경』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경전이 중국에 유입되어 번역되기 이전이라고 저술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석론』의 후반 3권의 방대한 분량에 다양한 밀교적 요소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밀교의 정수를 담은 경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전들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석론』이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널리 유포된 경전의 권위에 의거하는 특징에서 비추어 본다면, 중국으로 유입된 밀교의 대표적 경전인 『대일경』이나 『금강정경』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문점을 남긴다. 또한 선무외·금강지·불공의 밀교적 특색을 드러내는 ‘大日’이나 ‘金剛’이라는 단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사실을 통해서도 『석론』의 저자는 세 명의 밀교승이 번역한 경전들을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⁵⁷⁾ 오히려 ‘文殊師利’가 경명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서, 문수신앙과 관련성이 고려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석론』은 금강지나 선무외가 입당하기 이전에 이미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7) 이시이도 「『釋摩訶衍論』の成立事情」, p.360에서 「『석론』에 보이는 다라니가 『대일경』이나 『금강정경』 등의 이른바 순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4. 戒明의 전래와 宗密의 탄생설

모치즈키와 사토 등은 카이묘가 『석론』을 일본에 전래한 779년을 『석론』의 저술시기의 하한선으로 잡고 있다. 이 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카이묘가 『석론』을 일본에 전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이묘의 전래에도 다양한 설이 제시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째는 『唯識論同學鈔』에 설하는 779년(宝龜10) 설이고, 둘째는 『守護國界章』의 781년(宝龜12) 설이며, 셋째는 『本朝高僧傳』에 보이는 810년(弘仁年間) 설이다. 이 중에 779년에 전래되었다는 것이 『續日本記』와 『日本高僧傳要文抄』에 기술되고 있으므로, 카이묘가 『석론』을 일본에 전래한 시기를 779년으로 보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카가와와는 중국에서 『석론』을 인용한 최초의 문헌이 종밀의 『圓覺經略疏鈔』⁵⁸⁾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논에 대한 저술시기를 종밀의 탄생 이전으로 규정한다. 종밀이 탄생한 해는 780년으로, 카이묘가 일본에 『석론』을 전래한 779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이다. 결국 『석론』에 대한 기록이 8세기 말에 등장하므로 이 논문은 분명히 779년 이전에는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V. 남겨진 경전들의 가능성

앞에서 검토한 경전은 『석론』에 인용된 문장과 원전의 부분이 일치하여, 저자나 번역자 및 성립시기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경전들은 경명만 보이거나 『석론』에서 인용한 문장과 일치하는 문장이 원전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전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석론』의 저술시기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경전들은 어느 정도 저술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현재 존재하는지, 경명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58) 『圓覺經略疏鈔』(卍續藏經9, p.925c19), “就一經一部隨文解釋名為釋論準龍樹菩薩.”

1. 현재 존재하는 경전

1) 경명이 일치하는 경전

『석론』에서 제시한 『마하연론』의 소의경전 100부 가운데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경명이 일치하는 것은 ③『금강삼매경』, ④『제법무행경』, ⑨『대승동성경』, ④⑤『연기경』, ⑧⑨『수행도지경』의 5종이다. 이 중에서 『금강삼매경』을 제외하고는 경전의 내용없이 명칭만 제시되어 있다. 『수행도지경』은 284년에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하였고, 『제법무행경』은 401년에 구마라집이 옮겼다. 『대승동성경』은 570년에 사나야사(闍那耶舍)가 역출하였고, 『연기경』⁵⁹⁾은 현장이 661년에 번역하였다.

2) 경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전

『마하연론』의 소의경전 100부에서 『석론』에 보이는 경명이 본래 명칭의 일부 본인 경전 가운데 앞에서 다룬 ①⑨『유마힐경』, ③⑩『화엄경』, ③⑧『능가경』, ③⑨『본업경』, ⑦⑪『부인경』을 제외하고 ③⑪『대품경』, ④③『팔덕경』, ④⑨『무상경』, ⑦⑫『법문경』, ⑦⑮『총지경』을 검토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석론』에 인용된 문장이 있지만 원전과 일치하지 않는 『무상경』, 『총지경』, 『대품경』, 『법문경』이다. 『무상경』은 축불념이 번역한 『大方等無相經』⁶⁰⁾과 구마라집이 역출한 『諸法無相經』⁶¹⁾이 있다. 그러나 『석론』에 인용된 문장⁶²⁾은 보이지 않는다. 『총지경』은 비니다유지(毘尼多流支)가 번역한 『大乘方廣總持經』⁶³⁾과 축법호가 옮긴 『佛說決定總持經』⁶⁴⁾이 있다. 『석론』에서는 『총

59) 玄奘이 번역한 『緣起經』 외에도 ‘緣起經’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명으로는 施護가 번역한 『大堅固婆羅門緣起經』(大正藏1)과 『佛說白衣金幢二婆羅門緣起經』이 있다. 하지만 이 두 경전은 각각 1010년, 1012년에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석론』에서 지시하는 『연기경』이 될 수 없다.

60) 『佛說佛名經』(大正藏14, p.187c13-14); 『歷代三寶紀』(大正藏 49, p.77a19); 『大周刊定眾經目錄』(大正藏 55, p.387c20-22).

61) 『大周刊定眾經目錄』(大正藏55, p.377a13-14).

62)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11b28-c02).

63) 『歷代三寶紀』(大正藏49, p.102c02).

64) 『歷代三寶紀』(大正藏49, p.63c14); 『出三藏記集』(大正藏55, p.7c23).

지경』을 세 번 인용하지만⁶⁵⁾ 두 경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⁶⁶⁾ 『대품경』은 현장이 660년부터 663년까지 번역한 『大般若波羅蜜多經』이다. 『석론』은 『般若波羅蜜經』⁶⁷⁾ 또는 『般若波羅蜜中』⁶⁸⁾이라고 하여 마치 『대반야바라밀경』을 참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석론』에 쓰인 문장은 이 경전에서 찾을 수 없다.⁶⁹⁾

『법문경』은 축법호가 314년 번역한 『佛說大淨法門經』⁷⁰⁾, 성견(聖堅)이 388년에서 407년 사이에 번역한 『佛說無崖際總持法門經』⁷¹⁾, 5세기 초에 번역되었지만 번역자를 알 수 없는 『優婆夷淨行法門經』, 담마유지(曇摩流支)가 504년에 번역한 『信力入印法門經』⁷²⁾, 진제가 번역한 『義法門經』과 『廣義法門經』⁷³⁾,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가 583년에 번역한 『大莊嚴法門經』⁷⁴⁾, 현장이 650년에 번역한 『分別緣起初勝法門經』, 지바하라(地婆訶羅)가 676년부터 688년 사이에 번역한 『大乘遍照光明藏無字法門經』이 있다.⁷⁵⁾ 이 중에서 『석론』에 2회 인용된 문장⁷⁶⁾과

65) 『釋摩訶衍論』(大正藏32, p.593a11-12; p.619a22-b02; p.601b14-15).

66) 산실된 경전에서 『총지경』의 존재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出三藏記集』에 의거하면 『總持經』(『出三藏記集』, 大正藏55, p.8c14)은 『生經』(『生經』, 大正藏3, p.84a01; p.85c25)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歷代三寶紀』(大正藏49, p.63b14)와 『大周刊定眾經目錄』(大正藏55, p.418b21-22)에 따르면 西晉의武帝시대에 竺法護가 번역한 것으로 『佛心總持經』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불심총지경』은 또한 弘始년간에 鳩摩羅什이 번역하기도 하였다(『大周刊定眾經目錄』, 大正藏55, p.419a15-16). 하지만 『불심총지경』은 『心總持經』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出三藏記集』, 大正藏55, p.22a24), 경록에서는 별도로 『심총지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無端紙持經』(『出三藏記集』, 大正藏55, p.35c14; 『歷代三寶紀』, 大正藏49, p.61a02, 魏와 吳의 失譯經으로 분류)과 『八總持經』(『出三藏記集』, 大正藏55, p.36b28; 『歷代三寶紀』, 大正藏49, p.61a17, 魏와 吳의 失譯經으로 분류)이 있다.

67) 『釋摩訶衍論』(大正藏32, p.593a05-07).

68)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15b23-25; p.624b24-26).

69) 『석론』에 인용된 문장은菩提流支가 509년에 번역한 『金剛般若波羅蜜經』(大正藏8)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70) 『出三藏記集』(大正藏55, p.7c16); 『經律異相』(大正藏53, p.46a17); 『大周刊定眾經目錄』(大正藏55, p.399b21-23).

71) 『大周刊定眾經目錄』(大正藏55, p.390a28-b01); 『出三藏記集』(大正藏55, p.29c18); 『歷代三寶紀』(大正藏49, 83c01).

72) 『歷代三寶紀』(大正藏49, p.85c04); 『大周刊定眾經目錄』(大正藏55, p.381a12-14).

73) 『歷代三寶紀』(大正藏49, p.87c17); 『大周刊定眾經目錄』(大正藏55, p.378b10-12).

74) 『大周刊定眾經目錄』(大正藏55, p.399b24-27); 『歷代三寶紀』(大正藏49, p.102c13).

75) 이 외에도 『大集法門經』(大正藏1), 『佛說如幻三摩地無量印法門經』(大正藏12), 『佛說海意菩薩所問淨印法門經』(大正藏13), 『佛說入無分別法門經』(大正藏15), 『佛說四品法門經』(大正藏17) 등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宋나라 시대에 역경된 것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76)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11c13-18; p.611c28-29).

서술이 일치하는 경전은 없다.⁷⁷⁾

두 번째는 『석론』에 인용된 부분이 없이 경명만 언급된 『팔덕경』이다. ‘팔덕경’을 포함하는 경전으로는 구마라집이 402년에서 412년 사이에 번역한 『海八德經』이 있다. 그러나 『석론』에서는 ‘팔덕경’이라는 경명만 드러나고 있어서 『팔덕경』이 『해팔덕경』을 지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2. 산실된 경전

『석론』에 제시된 『마하연론』의 소의경전과 『석론』이 인용한 경전 가운데, 『역대삼보기』나 『출삼장기집』과 같은 경록이나 다른 경전에 인용된 부분을 통해서 존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경전은 ②『무시경』, ④『윤전경』, ③⑥『불성경』, ⑦⑥『부동경』, 『용왕경』, 『보적경』, 『도품경』, 『천자경』, 『포외경』, 『세계경』, 『음성경』이다.

1) 경명이 일치하는 경전

경명이 일치하는 경전은 『무시경』과 『부동경』이다. 첫째, 『무시경』은 구마라집이 409년에 번역한 『中論』⁷⁸⁾과 411년에서 412년 사이에 번역한 『成實論』⁷⁹⁾에 보인다. 또한 승가발타라(僧伽跋陀羅)가 488년에 번역한 『善見律毘婆沙』⁸⁰⁾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중론』·『성실론』·『선견율비바사』에 인용된 『무시경』의 내용이 각각 다르고 『석론』에 인용된 부분⁸¹⁾과도 서로 같지 않아서,

77) 산실된 경전의 가능성을 염두해보면, 聶道眞이 번역한 『菩薩出要行無礙法門經』(『出三藏記集』, 大正藏55, p.23a14; 『大周刊定眾經目錄』, 大正藏55, p.383c01-02), 菩提流支가 번역한 『菩薩境界奮迅法門經』(『大周刊定眾經目錄』, 大正藏55, p.378a26-28, 碓本-산실 목록에 포함), 그 외에 『無量法門經』(『大周刊定眾經目錄』, 大正藏55, p.440a13, 실역 목록에 포함), 『佛說大辯邪正法門經』(『大周刊定眾經目錄』, 大正藏55, p.473c23, 위경 목록에 포함)이 있다. 또한 다른 경전에 인용된 『법문경』이 있는데, 『大寶積經』(大正藏11)에는 『一切法門經』(『大寶積經』, 大正藏11, p.439a22-25), 『授幻師跋陀羅記法門經』(『大寶積經』, 大正藏11, p.492b03-04), 『諸寶法門經』(『大寶積經』, 大正藏11, p.648a03-06)의 세 가지 『법문경』이 등장하고, 『阿毘達磨大毘婆沙論』(大正藏27)에는 『大因緣法門經』(『阿毘達磨大毘婆沙論』, 大正藏27, p.119b08; p.122a09; p.596a20; p.911b12)이 네 차례에 걸쳐 나타난다.

78) 『中論』(大正藏30, p.23b10), “無始經中說. 眾生為無明所覆.”

79) 『成實論』(大正藏32, p.354c11-12), “如無始經及五天使等諸經中說.”

80) 『善見律毘婆沙』(大正藏24, p.685c01-02), “大德勒棄多 往婆那婆私國 於虛空中而坐 坐已為說無始經.”

동일한 『무시경』인지 확인할 수 없다.

둘째, 『부동경』은 현장이 651년에서 654년까지 번역한 『阿毘達磨俱舍論』에서 ‘부동’의 뜻을 설명하면서 인용되었다.⁸²⁾ 그러므로 현장이 이 논을 번역할 당시까지는 『부동경』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석론』에는 경명만 보이고 있어서 같은 경전인지 알 수 없다.

2) 경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전

『석론』에 본래의 명칭 중 일부만이 경명으로 기록된 경전은 『윤전경』, 『불성경』, 『용왕경』, 『보적경』, 『도품경』, 『포외경』, 『천자경』, 『세계경』, 『음성경』이고, 『석론』에 인용된 문장의 유무에 의해 구분된다. 『윤전경』과 『불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경전들은 『석론』에서 각 경전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본래의 경전에서는 찾을 수 없다.

『용왕경』은 축법호가 285년에 역출한 『佛說海龍王經』⁸³⁾이 있다. 그리고 보리유지가 508년에서 535년 사이에 번역한 『彌勒菩薩所問經論』⁸⁴⁾에서 보이는 『阿耨大池聖者龍王經』과 『如娑伽羅龍王經』, 『六度集經』에 포함된 『盤達龍王經』⁸⁵⁾이 있다. 또한 용수가 짓고 구마라집이 번역한 『大智度論』에서도 『용왕경』을 인용하고 있다.⁸⁶⁾ 하지만 『석론』에 인용된 내용⁸⁷⁾이 『불설해용왕경』에 나오지 않고, 다른 경론에 인용된 『용왕경』의 문장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용왕경』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⁸⁸⁾

81)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3c26-27).

82) 『阿毘達磨俱舍論』(大正藏29, p.81a05), “不動經中據能感得不動異熟說名不動.”

83) 『出三藏記集』(大正藏55, p.7b24; p.14b04).

84) 『彌勒菩薩所問經論』(大正藏26, p.239a07-08), “阿耨大池聖者龍王經中 佛告龍王 …”; (p.241a03-05), “如娑伽羅龍王經中說 龍王 …”

85) 『出三藏記集』(大正藏55, p.34c24); 『大周刊定衆經目錄』(大正藏55, p.402c01-02).

86) 『大智度論』(大正藏25, p.424b14-15), “問曰 龍王經中說 龍得菩薩道 何以說是惡道.”

87) 『釋摩訶衍論』(大正藏32, p.593b02-04).

88) 이 외에 현존하지 않더라도 ‘용왕경’을 포함한 경명의 기록이 경록에 보인다. 지겸이 223년에서 253년까지 번역한 『難龍王經』(『出三藏記集』, 大正藏55, p.19a06; 『歷代三寶紀』, 大正藏49, p.117a28), 축법호가 308년에 역출한 『阿耨達龍王經』(『出三藏記集』, 大正藏55, p.7c04; 『大周刊定衆經目錄』, 大

『보적경』은 보리유지가 706년에서 713년까지 번역한 『大寶積經』이 있지만, 이 경전에서는 『석론』에 인용된 내용⁸⁹⁾을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출삼장기집』⁹⁰⁾에서 179년 지참(支謙)이 『보적경』을 번역했다고 기록하고, 『역대삼보기』⁹¹⁾에도 사나야사가 556년에 『보적경』을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견의(堅意)가 짓고 도태(道泰)가 397년에서 439년 사이에 번역한 『入大乘論』⁹²⁾, 보리유지가 508년에서 535년까지 번역한 『彌勒菩薩所問經論』⁹³⁾, 비목지선(毘目智仙)이 541년 번역한 『三具足經憂波提舍』⁹⁴⁾에서도 『보적경』을 인용하고 있다. 더욱이 혜교(慧皎)가 519년에 지은 『高僧傳』의 「釋法成傳」에서는 5세기 중엽에 살았던 법성(法成)이 『보적경』을 외웠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⁹⁵⁾

『도품경』은 축법호가 번역한 『菩薩十住行道品經』⁹⁶⁾과 강승회(康僧會)가 역출한 『道品經』이 있다.⁹⁷⁾ 하지만 이 두 경전 모두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석론』에 인용된 내용⁹⁸⁾의 출처는 알 수가 없다. 『포외경』은 용수가 저술하고 구마라집이 402년에서 412년 사이에 번역한 『十住毘婆沙論』에 ‘포외경’을 경명에 포함하는 『佛離怖畏經』이 인용되어 있다.⁹⁹⁾ 그러나 『십주비바사론』에 인용된 『불리포외경』의 문장이 『석론』에 인용된 『포외경』의 문장¹⁰⁰⁾과 달라서, 『불리포외경』과 『포외경』의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正藏55, p.393b01-04), 그리고 『金轉龍王經』(『出三藏記集』, 大正藏55, p.34c23)-『蘇曷龍王經』(『出三藏記集』, 大正藏55, p.34c25)-『三龍王經』(『出三藏記集』, 大正藏55, p.34c26)이 있다.

89)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5a16-17).

90) 『出三藏記集』(大正藏55, p.95c22-29), “支謙傳第二支謙… 出般若道行品楞嚴般舟三昧等三經 又有阿闍世王寶積等十部經.”

91) 『歷代三寶紀』(大正藏49, p.100b16).

92) 『入大乘論』(大正藏32, p.48a06-12), “如佛於寶積經中所說如是迦葉…”

93) 『彌勒菩薩所問經論』(大正藏26, p.235b17-22), “依此義故如來寶積經中說 菩薩有四種非善知識…”

94) 『三具足經憂波提舍』(大正藏26, p.364b08-12), “不漏之法如寶積經 佛言迦葉…”

95) 『高僧傳』(大正藏50, p.399a01-07), “釋法成 涼州人… 後小疾便告衆云 成常誦寶積經 於是自力誦之 始得半卷 氣劣不堪.”

96) 『出三藏記集』(大正藏55, p.22c21); 『眾經目錄』(大正藏55, p.119c20).

97) 『出三藏記集』(大正藏55, p.97a12-14).

98) 『釋摩訶衍論』(大正藏32, p.593a16-20; p.606a23-24).

99) 『十住毘婆沙論』(大正藏26, p.113a11), “如佛離怖畏經中說怖畏法.”

100) 『釋摩訶衍論』(大正藏32, p.593a24-26).

『천자경』은 『석론』에 『天子經』¹⁰¹⁾과 『八勝天子經』¹⁰²⁾의 두 가지가 나타나지만, 두 경전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경명에 ‘천자경’을 포함한 경전이 나타나는데, 촉법호가 266년 역출한 『佛說須真天子經』¹⁰³⁾, 반야유지(般若流支)가 541년에 번역한 『聖善住意天子所問經』, 사나굴다(闍那堀多)가 옮긴 『商主天子所問經』¹⁰⁴⁾, 그리고 『命盡天子經』¹⁰⁵⁾이 있다. 이 가운데 『수진천자경』·『성선주의천자소문경』·『상주천자소문경』은 현존하지만 『석론』에 인용된 구절과 일치하는 부분은 없다.

『세계경』은 『過去香蓮華佛世界經』¹⁰⁶⁾, 촉담무란(竺曇無蘭)이 4세기에 옮긴 『見水世界經』¹⁰⁷⁾, 승가발마(僧伽跋摩)가 5세기에 번역한 『當來選擇諸惡世界經』¹⁰⁸⁾, 6세기에 역출된 『佛說劫中世界經』¹⁰⁹⁾이 있다. 그러나 이 경전들은 남아있지 않아서 『석론』¹¹⁰⁾에 사용된 경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음성경』은 도작(道綽)이 609년에서 645년 사이에 찬술한 『安樂集』¹¹¹⁾, 규기(窺基)가 7세기에 저술한 『阿彌陀經通贊疏』¹¹²⁾에 『鼓音聲經』이 보인다. 하지만 이 경전이 현존하지 않고 일부만 확인할 수 있어서 『석론』이 언급한 『음성경』¹¹³⁾과 동일한 경전인지 알 수 없다.

『윤전경』의 경명은 148년에서 170년 사이에 안세고(安世高)가 번역한 『轉法輪經』의 다른 명칭인 『法輪轉經』¹¹⁴⁾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불성경』의 경명은

101) 『釋摩訶衍論』(大正藏32, p.593a21-23).

102) 『釋摩訶衍論』(大正藏32, p.623c14-20).

103) 『出三藏記集』(大正藏55, p.9c09); 『佛說佛名經』(大正藏14, p.187c02).

104) 『佛說佛名經』(大正藏14, p.193c14).

105) 『出三藏記集』(大正藏55, p.33c17).

106) 『出三藏記集』(大正藏55, p.22a10); 『經律異相』(大正藏53, p.57a01-b06).

107) 『出三藏記集』(大正藏55, p.22a15); 『大周刊定衆經目錄』(大正藏55, p.383c20-22).

108) 『出三藏記集』(大正藏55, p.29c25); 『經律異相』(大正藏53, p.53b18-c21); 『歷代三寶記』(大正藏49, pp.91a18-92a07).

109) 『法苑珠林』(大正藏53, p270a11-18).

110) 『釋摩訶衍論』(大正藏32, p.593b06-08).

111) 『安樂集』(大正藏 47, p.6a19-20), “又如鼓音聲經云 爾時阿彌陀佛與聲聞衆俱.”

112) 『阿彌陀經通贊疏』(大正藏 37, p.343b15), “鼓音聲經云.”

113) 『釋摩訶衍論』(大正藏 32, p.593b10-11).

114) 『出三藏記集』(大正藏55, p.5c18); 『開元釋教錄』(大正藏55, p.479c20).

『개원석교록』¹¹⁵⁾에 의거하면 『彌勒摩尼佛說開悟佛性經』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윤전경』과 『불성경』은 『석론』에 인용된 문장 없이 경명만 보이기 때문에 두 경전의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VI. 나오는 말

『석론』은 『마하연론(기신론)]이 소의로 하는 100가지 경전을 제시하고, 많은 경전에 근거하여 『기신론』을 해석한다. 그리고 『석론』에서 사용된 경전들을 현재의 존재성, 원전에 대한 경명 및 인용문의 일치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29종류의 경전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전에 근거하여 『석론』과 관련된 저자, 번역자, 저술시기에 대한 논쟁들을 고찰하였다.

우선, 『석론』의 「序」에 기록된 저자와 번역자를 검토하였는데, 『석론』에는 용수보다 후대에 제작된 『능가경』과 『부인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의 저술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동시에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으로 여겨지는 『본업경』이 포함되어 있어 찬술지역이 인도가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번역자인 筏提摩多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석론』의 번역 시기인 401년보다 늦게 번역된 『마하마야경』과 『부증불감경』이 보이므로, 筏提摩다가 5세기 초에 이 논을 번역했다는 기록도 진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다음으로는 『석론』의 저술시기의 기준이 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타니가와와 실차난타역의 『능가경』을 인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실차난타가 『능가경』을 번역한 700년 이전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기신론』도 실차난타의 번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번역본에 대한 주석이 거의 없는 점에 미루어 본다면, 그의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모리타와 카가와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법장의기』와 『석론』의 관계에

115) 『開元釋教錄』(大正藏55, p.672c22).

기반하여 법장의 만년인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 이후에 『석론』이 저술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은 『석론』에 인용된 『능가경』의 문장이 『능가경』의 세 가지 번역본이나 『해동소』와 일치하지 않지만, 『법장의기』의 문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모치즈키를 비롯한 모리타와 카가와는 『석론』의 후반부에 보이는 밀교적인 성향에 주목하여, 선무외·금강지·불공이 당나라에 들어온 8세기 초·중반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석론』에는 선무외나 금강지 및 불공이 번역한 경전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사상적 경향을 반영하는 경명도 찾기 힘들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보다 좀 더 이른 시기인 선무외·금강지·불공이 당나라에 들어오기 전이나 『대일경』·『금강정유가중약출염송경』·『금강정경』이 번역되기 전에 『석론』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석론』에서 사용한 경전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저술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전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능성의 한 부분으로 남겨두고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경전들로 고찰한 『석론』의 저술시기를 정리해보면, 『석론』은 법장의 만년에서 선무외나 금강지가 당나라에 들어와 번역하기 이전에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석론』에서 밀교적 성향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경명에 ‘문수사리’를 포함하는 경전을 다수 인용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 문수신앙의 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석론』과 문수신앙과의 연관성을 포함한 사상적 기원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開元釋教錄』 大正藏55
- 『高僧傳』 大正藏 50
- 『金剛三昧經』 大正藏 9
- 『起信論疏』 大正藏 44
- 『楞伽阿跋多羅寶經』 大正藏 16
- 『大寶積經』 大正藏 11
- 『大乘起信論』 大正藏32
- 『大乘起信論義記』 大正藏 44
- 『大乘入楞伽經』 大正藏 16
- 『大宗地玄文本論』 大正藏 32
- 『大周刊定眾經目錄』 大正藏 55
- 『大智度論』 大正藏 25
- 『彌勒菩薩所問經論』 大正藏 26
- 『法苑珠林』 大正藏 53
- 『菩薩瓔珞本業經』 大正藏 24
- 『佛說佛名經』 大正藏 14
- 『佛說阿彌陀經義疏』 大正藏 37
- 『三具足經憂波提舍』 大正藏 26
- 『釋摩訶衍論』 大正藏 32
- 『善見律毘婆沙』 大正藏24
- 『成實論』 大正藏32
-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大正藏 12
- 『十住毘婆沙論』 大正藏 26
- 『阿彌陀經通贊疏』 大正藏 37
- 『阿毘達磨俱舍論』 大正藏 29

- 『阿毘達磨大毘婆沙論』大正藏 27
- 『安樂集』大正藏 47
- 『歷代三寶紀』大正藏 49
- 『圓覺經略疏鈔』已續藏經 9
- 『入楞伽經』大正藏 16
- 『入大乘論』大正藏 32
- 『中論』大正藏30
- 『出三藏記集』大正藏 55

2. 단행본류

- 이기영, 「釋摩訶衍論의 密敎思想」, 『한국밀교사상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6.
- 石井公成, 「『釋摩訶衍論』의 成立事情」, 『鎌田茂雄博士還曆記念論集』, 東京: 鎌田茂雄博士還曆記念論集刊行會, 1988.
- 鹽入亮忠, 「釋摩訶衍論解題」, 『國譯一切經』論集部4, 東京: 大東出版社, 1938.
- 中村正文, 「釋摩訶衍論의 成立에 關する 諸資料」, 『佛敎研究의 諸問題』, 出喜房佛書林, 1986.
- 那須政隆, 『釋摩訶衍論講義』, 成田: 成田山佛敎研究所紀要, 1992.
- 水野弘元 外3人, 『佛典解題事典』, 東京: 春秋社, 1993.
- 森田龍僊, 『釋摩訶衍論之研究』-第III編 釋摩訶衍論의 眞僞, 京都: 文政堂, 1969.

3. 논문류

- 김지연, 「『釋摩訶衍論』의 註釋的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遠藤純一郎, 「『釋摩訶衍論』新羅成立說에 關する 考察」, 『智山學報』45, 京都: 智山勸學會, 1996.
- 石井公成, 「『釋摩訶衍論』에 於ける 架空經典」, 『佛敎學』25, 東京: 佛敎思想學會, 1988.
- 香川英隆, 「釋摩訶衍論의 史的 研究」, 『密敎研究』8, 和歌山: 高野山大學密敎研究會, 1922.
- 佐藤厚, 「新羅華嚴と『釋摩訶衍論』との 關係をめぐる 一つの 手がかり」, 『東洋學研究』

44,東京: 驅澤大學東洋學會, 2007.

- 谷川泰教, 「入楞伽經研究ノート」, 『仏教学会報』6, 高野山: 高野山大学仏教学会, 1974.
- 望月信亨, 「釋摩訶衍論の眞偽」, 『佛書研究』26, 東京: 佛書研究會, 1917.
- _____, 「釋摩訶衍論偽造考」, 『佛教學雜誌』2-8, 東京: 金尾文淵堂, 1921.

A Study on the Period of Creation of the *Shi moheyan lun* (釋摩訶衍論) Based on the Quoted Sutras

Kim Jiyun
HK Research Professor
Geumgang University

The *Shi moheyan lun* (釋摩訶衍論) is an annotated book of the *Awakening of Mahāyāna Faith* (大乘起信論). This book has been thought to be written by Nāgarjuna (龍樹) and translated by Vṛddhimata (筏提摩多) in 401. However, there are problems; neither the record of this book nor the name of the translator Vṛddhimata can be found in compilation of notes on the translation of the Tripiṭaka such as the *Chu sanzang jiji* (出三藏記集), etc.

From these reasons, many controversies about the writer and translator continue. Many scholars, like Mochizuki Sinkou, Tanigawa Taikyou, Morita Ryusen, Kagawa Eiryu, Nasu Seiryu, and so on, studied the time of writing and presented various theories. In relation to this debate,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writer and translator of the *Shi moheyan lun*, preceding studies through 100 sutras which the *Moheyan lun* (摩訶衍論) is based on, along with several quoted sutras in this book.

One result of this study is, sutras which were written after Nāgarjuna and translated after the 5th century are quoted in the *Shi moheyan lun*. Therefore, it is noted that the record of the preface that mentioned Nāgarjuna (龍樹) and Vṛddhimata (筏提摩多) as the writer and translator respectively is not true. Furthermore, the time of writing is considered by focusing on people like Śikṣānanda (實叉難陀), Fazang (法藏), Śubhakarasiṃha (善無畏), Vajrabodhi (金剛智), Kaimyo (戒明), and Zongmi (宗密). Consequently, it was found out that a

sentence of *Dasheng qixinlun yuji* (大乘起信論義記) of Fazang is cited in the *Shi moheyan lun*. Also, the sutras, which were translated by Śubhakarasiṃha and Vajrabodhi, and their ideas were not reflected in the *Shi moheyan lun*.

Based on these facts, the *Shi moheyan lun* was probably written from Fazang's later years to before the time in which Śubhakarasiṃha (AD. 716) and Vajrabodhi (AD. 719) came to the Tang Dynasty.

Keywords

Shi moheyan lun, sutras, Fazang, Śubhakarasiṃha, Vajrabodhi

2015년 11월 05일 투고
2015년 12월 02일 심사완료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